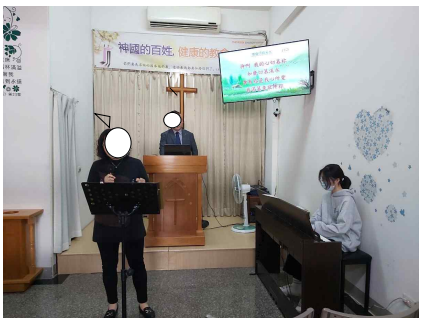
대만에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벌써 34도를 찍었으니 앞으로 한 6개월 잘 견뎌내야지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는 곳이니 어느 곳이나 사명지요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기에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섬기고 있는 가오슝 한국교회 청소년부는 요즘 두 분의 선생님들이 참으로 열심과 기쁨으로 청소년부를 섬기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매주 12명에서 15명까지 참석을 하여 출석률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답니다. 새해1월 1일부터 120일(4달) 계획으로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여 4월 말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구약도 한번 해보자고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부 기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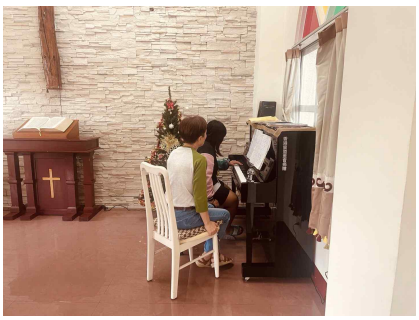
교회 생활에 더 흥미를 가지게 할겸, 앞으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매주 예배 후에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시작하여 4개월 정도 되었지만 아직 실력은 미천합니다. 학기 중이라 주중에 연습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래도 매주 기타를 메고 와서 연습 안했다고 야단 아닌 야단을 맞으며 손가락의 통증을 견디며 배우는 모습이 기특하게 보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합숙 훈련도 하고 해서 성탄절에 기타 합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성탄절에 큰 기쁨의 선물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승연 선교사가 두 명의 청소년에게 피아노 반주를 가르쳐 왔습니다. 한 명은 한국 여선교사님이 대만 분과 결혼한 가정에 딸로서, 중3학생인데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대만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을에 고입을 앞둔 수험생이라 3월 말까지 가르치는 것을 종료했는데 반주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 아이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왕복 3시간 30여분 떨어진 산속 루카이 족 교회의 중2학년 인데 벌써 1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 친구는 선교사의 딸 만큼은 못하지만 3주전 부터 용감하게 교회에서 가끔 반주를 한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 교회이다 보니 찬양부르는 곡에 큰 변화가 없어서 반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무반주로 찬양을 부르다가 피아노 소리에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까 생각해봅니다.



여선교사님과 딸 수아

루카이 은농교회



은농교회 관혜 학생

커피브레이크 가오슝 센타가 세워지고 디렉터로 세움을 받아 더욱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대만 현지 교회에 보급을 하려는 계획이 저희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저희가 직접 달려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협력하고 있는 한인교회 사역의 조정 문제도 놓여있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제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문제들은 미국 본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 현장에서 사역들이 다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모임은 김승연 선교사가 비대면으로 선교사 한 그룹, 대면으로 한 그룹을 인도하고 있으며 교회 성도들 두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으로 선교사 한 그룹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 두 그룹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현지인들과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봅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여기도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현지인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대만 교회 찬양 사역자들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청소년 합창단을 조직해서 훈련시켜 보려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루카이족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루카이족과 오랫동안 협력을 해온 부농족, 파이완족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루카이 노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시작하기로 이야기는 시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와 교회 신앙 생활에 음악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대만 교회에 조그만 도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의 길을 나선 저희로서는 늘 북한 선교가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북한 선교의 첫발을 시작하게 한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과 지난해에 다시 연결이 되었고, 지난 가을 가오슝 한국교회에서 이삭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부흥회를 한후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7월에도 타이베이의 한 현지교회에서 북한 선교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제가 직접 할수 없을지라도 모퉁이돌을 통해 조그만 부분이라도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였더니 이삭 목사님이 자주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7월에 있을 선교집회가 대만 교회안에 북한 선교에 대한 불씨가 지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김승연 선교사가 반년이 넘게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오슝 한국교회 청소년부 예배모습

포커싱 가오슝 네트워크 4월 모임

2/4분기 기도제목

1. 올 여름에 원주민 교회에 단기선교팀이 들어오는데 원주민 교회와 선교팀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사역의 시간이 되도록...
2. 커피 브레이크 사역이 빠른 시일 안에 원주민과 대만 현지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3. 원주민 합창단의 조직과 그를 통한 예배 찬양 인도자 양성 사역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4. 저희와 3남매 자녀들의 건강과 성령충만한 삶을 위하여

2024년 5월 4일
대만 가오슝에서 김은우 김승연 선교사 올림